

왜 수사선(禪)인가?

전성기*

1. 서론
2. 서양 고대철학에서의 영성수련
3. 영성의 영성철학적 이해
4. 원효선에서 인문선, 수사선으로
5. 결론

■ 국문요약

아도(2017)가, 현자(賢者)를 이상으로 삼고 철학의 방법으로 ‘영성수련’이라는 ‘삶의 양식’을 실천하며 ‘지혜의 길’을 모색했다고 기술하는 서양 고대 철학은 수사선(禪)의 가능성을 열어보인다. 아도는 서양 고대인들에게 철학은, 현대의 일반적 ‘철학하기’와는 사뭇 달리, ‘이론적 담론이나 논증 체계의 확립에 있다기보다, 오히려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과 선택,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삶의 양식의 완성을 향한 수련’, 즉 ‘영성수련’이었다고 말한다. 이는 선불교 도래 이전의 원효선(禪)을, 양심철학의 6바라밀선(禪)에 크게 힘입어, 오늘에 되살리려는 인문선(禪)과 그 주요 분야인 수사선(禪)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입자적 수사’들이 커뮤니케이션의 ‘디폴트 모드’가 될 정도로 ‘과동적 수사’들이 위축돼 있는 오늘날에는 새로운 수사학적 사유와 실천

*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명예교수, jonsng@korea.ac.kr

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수사선은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수사학에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수사학적 시도이다. 동·서양 고대철학에서처럼, 수사선에서도 탐구와 실천의 중심적 주제는 ‘지혜’이다. 수사선의 탐구와 실천이 인문학에도 새로운 성찰의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수사학, 수사선, 영성수련, 영성, 참나, 지혜, 몰입사고, 학문사변행

1. 서론

수사학이 전통적으로 ‘설득 기법’, 나아가 ‘말 잘하기 기술’로 정의되어 왔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한 방향의 연구들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수사학 탐구들이 이루어져왔지만, 포스·포스(2003)가 말하는 ‘정복의 수사’(Conquest rhetoric), ‘바꿈의 수사’(Conversion rhetoric) 같은 ‘입자적 수사’들이 커뮤니케이션의 ‘디폴트 모드’가 될 정도로, ‘호의의 수사’(Benevolent rhetoric), ‘조언의 수사’(Advisory rhetoric), 특히 ‘초대의 수사’(Invitational rhetoric) 같은 ‘파동적 수사’들이 억눌려 있는 오늘날에는 새로운 수사학적 사유와 실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¹⁾ 브라운(1990:6)은 수사학을 아예 ‘신수사학들의 역사’로 규정할 바 있고, 고든(2007:90)은 ‘온세상의 커뮤니케이션 학자들, 특히 아시아의 학자들에게, 생각·느낌·행동을 자유롭게 하며 인류가 조화롭게 되는데 기여하는, 활기차고 진정으로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창출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시대에도 다시금 ‘신수사학’(New Rhetoric)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수사선(禪)은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수사학에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수사학적 시도이다. 수사선은 ‘이성’과 ‘논리’뿐 아

1) 포스·포스(2003:10-5)는 ‘초대의 수사’가 1) 이해가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2) 화자와 청중의 동등성, 3) 다양한 전망들이 원천, 4) 자신이 선택한 변화, 5) 양보를 하려는 선의, 이 다섯 가정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기술한다.

나라, 동·서양 고대철학에서처럼 ‘영성’(Spirituality)에 기반하여, 수사적 지혜의 탐구와 실천을 추구한다.

서양 고대철학의 탁월한 연구자 피에르 아도가 『고대 철학이란 무엇인가』(2017)²⁾에서 기술해 보이는, 성인(聖人)을 이상으로 삼은 고대 동양철학처럼, 현자를 이상으로 삼은 고대철학 학파들, 특히 ‘영성수련’과 ‘현자’ 관련 부분에서 인문선(禪)에 대한 일종의 ‘개념적 지형도’가 대략적으로 그려지기는 하나, 오늘의 영성철학적 이해와 보완이 필요하다. 아도는 서양 고대인들에게 철학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철학하기’와는 사뭇 달리, ‘이론적 담론이나 논증 체계의 확립에 있다기보다, 오히려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과 선택,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삶의 양식의 완성을 향한 수련’, 즉 ‘영성수련’(Exercices spirituels)이었다고 밝힌다. 그러한 ‘삶의 양식’이 추구한 것은, ‘철학’의 ‘지혜-사랑’(philo-sophia)이라는 어원적 의미에 어울리는, 파비(2012:17)의 표현을 빌리면, ‘지혜의 길’이다. 이는 선불교 도래 이전의 대승선(禪)인 원효선(禪)을, 양심철학의 6바라밀선(禪)에 크게 힘입어,³⁾ 오늘에 되살리고자 하는 ‘영성적’ 인문선(禪)과 그 주요 분야인 수사선(禪)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수사선(禪)은 수사에 대한 ‘학문사변행’적 탐구와 메타인지적 6바라밀 분석의 부단한 융합적 실천이라 정의할 수 있다. 아도(2002:45)가 ‘영혼들을 매혹하는 기법’이라 하고, 플라톤이 ‘통속적 수사학’과 대립시키는, ‘영혼인도술’(psychagogie)로서의 ‘참된 수사학’도 영성철학과 수사선(禪) 관점에서 새로운 이해와 실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아도(2017)는 아도(2008)의 수정번역이다. 역자는 ‘Exercices spirituels’을 구역에서는 ‘영성수련’으로, 신역에서는 ‘정신 수련’으로 옮겼는데, ‘영성수련’이 더 적절해 보인다.

3) 윤홍식은 영성철학과 관련된 양심철학과 6바라밀선(禪)에 대한, 다른 데서는 접하기 아주 어려우나 궁금하게 여겨온 내용들을 저서들, 특히 수많은 유튜브 강의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꼭 필요한 십여편만 인용되었다.

2. 서양 고대철학에서의 영성수련

아도에 이어 ‘서양 고대철학에서의 영성수련’을 다룬 파비(2012)의 한 평자에 의하면, ‘서양 고대철학의 근본적 물음’은 ‘어떻게 더 잘 살까?’, 즉 ‘좋은 삶’의 문제이다. 이는 고대철학의 목적이 ‘인간이 잘 살도록 돕는 것’이고, ‘영성수련’은 그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답’이라는 것이다. 김유석(2011)도 피에르 아도의 『고대철학이란 무엇인가』(2008)에 대한 서평에서, 고대인들에게 ‘철학’이란 ‘이론적 답문이나 논증 체계의 확립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과 선택,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삶의 양식의 완성을 향한 수련에 있다’고 평하며, 그 내용을 ‘아도가 자신의 이러한 관점에 따라 고대철학사를 재구성한 것’이라 요약한다(383). 평자는 ‘플라톤의 형상이론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론과 같이 고도로 추상적인 이론들’도 ‘궁극적으로 영혼의 보살핌이나 관조적인 삶을 이루어나가는 계기 혹은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고,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의 원자론이나 스토아 철학자들의 우주론 역시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질병에 대한 치료제이자 처방으로 기능할 뿐’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니까 ‘철학의 목적은 이론이나 논증체계의 확립보다는 오히려 각자가 선택한 삶의 방식을 이루기 위한 교육과 도야(陶冶, formation)에서 찾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384).

아도(2002)는 ‘외양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고대철학 학파들에 의해 ‘사용된 방법들과 추구한 목적’에 ‘깊은 일체성’이 있다고 증언한다. ‘사용된 방법들’은 ‘설득의 수사적 변증적 기법들’, ‘내적 언어의 통제 시도’, ‘정신적 집중’이고, 모든 철학 학파들이 영성수련에서 ‘추구한 목적’은 ‘자아의 고양, 실현’이다. 영성수련은 바로, 인간적 편견들과 사회적 관습들에 따라서가 아니라, 바로 이성(raison)이라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살기를 배우는 ‘자아의 형성’, ‘파이데이아’가 바로 목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학파들은, 각자 나름대로, 인간이 스스로 변화, 개선,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의지의 자유를 믿는 것이다(61). 저자에 의하면, 철학 이론들은 ‘명백히 영성 실천에 소용되거나, 지적 수련들의 대상’이 된다. 이 ‘지적 수련’은 ‘그 자체로 영성수련에 다름아

닌 관조적 삶의 실천'이다. 그래서 '고대철학의 이론들을 그 이론들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러한 구체적 조망을 고려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학파이건 스승은 제자들을 '변화와 자아실현'에 이르게 하려고 애쓴다. 따라서 저술에는 '교육적·영혼인도적·방법론적 관심들이 반영'되기 마련이다(65-6).⁴⁾ 파비(2010)는 영성수련들의 핵심적 과정으로 명상(méditation)을 언급한다. '명상'은 '영성수련의 열쇠이며, 모든 철학의 열쇠'라고 한다(28). '명상 없는 영성수련은 없다'는 것이다(2). 철학자에게 명상은 '영성수련 실행의 도구'이다. '철학자는 그가 수련으로 삼는 것에 대해 집중하고, 준비하고, 명상해야' 한다. '철학적 명상'은 '이론이 실천'으로, '생각이 행위가 되는' 계기가 된다(29).⁵⁾

서양 고대철학에서 도달해야 할 이상은 현자(Sage)이다. 아도(2017)에 따르면, '그 모습은 살아 있는 인간의 몸으로 나타난 일종의 본보기라기보다 철학 담론이 묘사하는 하나의 이상(理想)으로 제시된다'(370). 저자는 '철학은 지혜에 이르는 예비 수련일뿐, 지혜에는 결코 이르지 못한다'고 말한다(23). 고대철학 학파들에서, 현자의 모습은 '철학자의 삶의 양식을 결정짓는 초월적 기준'이었다고 한다. '이 기준에 대한 묘사를 통해', 서로 다른 학파들에서 '심오한 일치들, 공통적 경향들'이 있었음이 확인된다(365). 에피쿠로스학파를 제외한 '나머지 학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현자는 소크라테스'이다(370). 송유래(2015)도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아도가 말한 삶의 방식으로서의 철학의 전형'으로 제시한다(118-19). '철학이 지혜를 위한 수행이고, 지혜가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앎이라면, 철학은 잘 살기 위해 자기를 변화시키는 수행'이다(121). 저자는 아도가 '서양 고대의 철학을 본질적으로 이성에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규정했다'며, '고대 철학자들은 잘 살기 위해 지혜를 추구했으며, 그러한 지혜를 이성을 통해 추구했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그는 '그들에게 지혜는 이성의 완성을 의미했고, 철학은 무엇보다도 이

4) 데이비슨(2002:13)은 '대부분의 현대철학자들과 달리', 아도의 관심을 끄는 것은 고대철학 담론의 '명제적·추상적 양상보다는 그 영혼인도적 양상'이라고 말한다.

5) 이 글에는 일일이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전성기, 『선禪, 지혜의 탐구와 실천』(미간)의 적지 않은 부분이 거의 그대로 인용되었음을 밝혀둔다; 전성기(2018a, 2018b, 2019) 참고.

성의 자기 개선 노력'이었으며, '철학이 주체의 전반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정신적 수행>[영성수련]이라고 할 때, 그 변화의 방향은 이성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었다'고 진술한다(133).

아도(2002)에 의하면, '모든 영성수련은 근본적으로, <나>를 염려·정념들·욕망들로 인한 소외에서 해방시키는, 자신으로의 회귀'이다. 이렇게 해방된 '나'는 이제 '이기적 열정적인 우리의 개성성이 아니라, 보편성과 객관성에 열려 있어서, 보편적 자연이나 사유에 참여하는, 우리의 도덕적 개인'이다(63). 저자는 서양 고대에서 '진정한 철학은 영성수련'이라며(65), 그 주요 예들로 ① 삶 공부, ② 대화 공부, ③ 죽음 공부, ④ 읽기 공부'를 든다(22-74). 이 '공부'들의 핵심은 '지혜 공부'이다. 어원적 의미의 '철학 공부'인 것이다.⁶⁾ 아도(2017)는 '몽테뉴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수 현대 철학자들이 철학을 순수한 이론적 담론으로 여기지 않고, 실천·금욕·자아 변화로 여겼'음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고대의 '철학자' 개념을 되살리는 것의 시급함을 일깨운다(444). 그는 '지혜를 추구하는 모든 인간에게 요구되는 항속적이며 근본적인 태도'라며, 그 모델들의 '본질적'인 것으로 '일종의 보편적 스토아주의'의 존재를 언급한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비교철학에 대해 적대적'이었으나 여러 동료 연구자들의 연구들을 읽으면서, '서양 고대의 철학적 태도와 동양의 그것 사이에는 <실로 당혹스러운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 '유사성'이 '역사적 영향으로 설명될 수 없'기에 더 당혹스러운 것이다(449). 이러한 유사성은 인문선에도 일깨우는 바가

6) 아도(2019:42)는 마르쿠스 아우렐레우스의 『명상록』은 '쓰여진 영성수련으로서, 성이나 시오의 저명한 <영성수련> 못지않게 엄밀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7) 아도(1997:331)에 의하면, 보편적 의미의 스토아주의자는 어떤 존재도 홀로가 아니라, 인류 전체와 우주 전체로 구성된 하나의 전체(un Tout)에 속한다는 사실을 의식한다. 스토아주의자는 이 '전체'를 한시도 잊지 않는다. 또한 스토아주의자는, 도덕의식[양심]의 순수성에 대한 깊은 인식으로 인해, 평온하고 자유로우며 깨끗하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깊이 신뢰한다. 장영란(2015:185)은 '영혼의 훈련을 통해 치유에 이르는 스토아학파의 대표적인 네 가지 철학적 훈련 방법'을 언급한다. 최악의 사태에 대한 예비훈련, 의식의 감찰 훈련,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 죽음에의 훈련. 그는 '스토아학파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 궁극적으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전한다.

아주 크다. 김현(2004)은 『주역』의 <건괘문언전>에 나오는 ‘修辭立其誠’(수사입기성: 말을 닦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을 통해 <레토리케를 넘어서는 수사학>을 전망한다(164). 저자가 전망하는 ‘수사학’은 ‘레토리케를 넘어 인간과 언어와 관련된 전 영역으로 넘쳐나며, 레토리케를 중심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서구의 인문학의 전통과 동양적 학문정신을 아우르며 한 차원 상승한 포괄적인 시각의 학문’으로서의 ‘수사학’이다(166-67). 이 ‘수사입기성’은, 공영달의 ‘수사입기성’ 이해에서 볼 수 있듯이,⁸⁾ 서양 고대철학에서의 ‘영성수련’과 깊이 통하는, 수사선(禪)의 일종의 ‘개념적 모형도’이다. 깨어서, ‘몰입’해서 하는 ‘수사입기성’ 실천은 그대로 ‘영성수련’이 될 것이다.

중요성에서는 ‘영성수련’에 못 미치나, 수사선(禪)이 관심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플라톤이 말하는 ‘참된 수사학’이다. 페르노(2007)에 의하면, ‘참된 수사학’과 ‘통속적 수사학’을 대립시키는 플라톤에게 ‘참된 수사학은 보통의 수사학을 넘어서며, ‘철학의 영역’에 소속되는, ‘학문이며 가르침이고, 철학자의 담론’이다. 저자는 ‘담론의 좋은 기술’을 ‘설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고, ‘영혼을 이끌어가는 기술’이라고 규정한다. 이 ‘기술의 핵심적인 기준은 진리’이다.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다루어야 할 질문에 관한 진리를 알아야 하며, 그 진리를 말해야만 하는데, 이것은 분리와 종합의 변증법의 방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⁹⁾ 또한 ‘수사학은 정신의 인도술이므로 청자들의 영혼을 알아야만’ 한다고 한다(99). 그는 ‘참된 수사학을 대표하는 연설가들은 아주 드물며, 아마도 ‘아리스티데스와 소크라테스 정도가 예외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94). 정혜진(2012:122)은 플라톤은 ‘변증론을 통하여 <신적인 것>(이테아)을 추구하지 않는 한 참된 수사학이 될 수 없

8) 김월희(2022:20): “공영달은 수사입기성에 대한 경세적 이해답게 수사입기성을 ‘수기치인(修己治人,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다스린다)’ 또는 ‘내성외왕(內聖外王, 안으로는 성인이 되고 밖으로는 왕도를 실현한다)’의 구도에 맞추어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곧 수사는 치인 내지 외왕에, 입기성은 수기 내지 내성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9) 아도(2017:115)는 플라톤의 변증법은 ‘순수한 논리적 훈련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는 대화자들에게 고행과 변화가 요구되는 영성수련’이었다고 한다. ‘이는 더 유능한 쪽이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는 두 사람 사이의 대결이 아니라, 양식있는 담론, 로고스의 합리적인 요구들에 따라 일치점을 이루려는 두 대화자의 공동의 노력과 관계되는 것’이다.

다고 주장한다'고 알려준다. '참된 수사학이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이 '〈신적인 것〉보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럴듯한 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매달린다는 데에 있다'고 한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은 험난하고도 어려운 일'이다, 저자는 '참된 수사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꿔놓을 수 있는 수사학이요, 그릇된 수사학은 그렇지 못한 수사학'이라고 기술한다.

바르트(1970:177)는 플라톤이 '그럴듯함', '환상'을 대상으로 하는 '나쁜 수사학'과 '진리'를 대상으로 하는 '좋은 수사학'을 구분했다면서, 'psychagogic'(영혼인도술)를 '말에 의한 영혼 연마'의 기법으로 규정한다. 그에게 '참된 수사학은 영혼인도술'이다. 한석환(2003)은 '플라톤이 말하는 참된 또는 좋은 수사학이란 좋은 국가 또는 완전한 국가만큼이나 어렵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과제'라며, '플라톤은 연설가한테 거의 충족시킬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라 평하면서(81), 그 실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저자는 '설득의 결과'라는 '영혼 인도'에서, '플라톤은 로고스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데에 이성의 영역도 포함시킨다'고 알려준다(93). 김영균(2021)은 플라톤의 『파이드로스』편을 <혼의 이끄는>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참된 언변술은 혼의 본성에 대한 앎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이해로 이끄는 것'이라 설명한다(212). 그에 의하면, '소크라테스가 참된 언변술을 제시한 이유는 파이드로스의 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그는 '대화편에서 의술과 언변술이 밀접하게 유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209-10). 저자는 『파이드로스』에서 '자신에 대한 고찰'이 '혼의 본성과 형상에 관한 형이상학적 차원의 논의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알려준다. 그는 '참된 언변술은 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이해를 통해 훌륭함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진술한다(212).

3. 영성의 영성철학적 이해

아도의 서양 고대철학 기술은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인문선禪에 대해 시사하는 바도 매우 크다. 그렇지만 자주 ‘이성’(raison)으로 표현되는 영성과 그 수련에 대해서는 영성철학적인 새로운 이해와 보완이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도 하다. 정현채(2018:123-24)가 전하는, 테야르 드 샤르댕 신부가 남긴,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 체험을 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다’라는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는다. 길희성(2021a)은 ‘영적 휴머니즘은 몸과 마음 이외에 사람에게는 제3의 측면 내지 요소가 있다고 본다’고 알려준다(98). ‘영적 휴머니즘은 데카르트적인 이분법적 인간관을 넘어 인간의 영적 본성을 말하는 삼분법적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몸과 마음’ 이외에 ‘영적 본성’인 ‘참 나(眞人)’가 있다는 것이다(99-100). 저자에 의하면, ‘영적 인간관’은 ‘불교, 힌두교, 그리스도교, 유교 등 세계의 모든 주요 종교전통의 공통적인 핵심’이다(18). 길희성(2018:234-35)은 ‘내면의 영성을 자각하고 실현하는 세계에서는 하느님과의 대면은 곧 자기 자신과의 대면이며, 참나를 아는 것이 하느님을 아는 것’이라 말한다. 선(禪)은 바로 그러한 ‘참나를 알고 늘 함께 하는 삶’의 실천이며 영적 진보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길희성(2021b:78)은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영적 선형성이 존재한다’며, ‘종교의 본질과 핵심은 인간과 우주에 내재하고 있는 이 깊은 영적 실재를 자각하고 키우는 데 있다’고 진술한다. 불교의 선(禪)을 포괄하는 인문선의 핵심적 과제의 하나도 그 기본적 토대가 되는 ‘이 깊은 영적 실재를 자각하고 키우는’ 것이다.

정영근(2012:159)은 원효가 ‘인간의 생활이상’으로 ‘표방’한 것으로 이기영이 이해한 <귀일심원 요익중생>의 의미를, ‘맹목적으로 태어나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육도중생의 상태로부터, 철학적 자각을 통해 깨달은 중생으로 질적 전환을 하는 것이 바로 귀일심원이요, 깨달은 중생으로서의 새로운 삶 즉 보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요익중생’이라고 해설한다. 이러한 ‘인간이 궁

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깨달은 중생으로서의 보살의 길'은 '선(禪)의 길'로서, '영적 휴머니즘'과 영성철학적으로 깊이 통하는 '길'이다. 길희성(2021a)은 '은총의 종교든, 수행을 강조하는 종교든,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혹은 이미 주어져 있는, 하느님의 선행적 은총의 발견과 자각,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삶의 변화가 본질적'이라 말한다. 그는 '이러한 원리적 입장'을 '고려시대의 선사 지눌'이 '돈오점수(頓悟漸修)라고 부른 것'이라고 이해한다. 저자는 '영적 휴머니즘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을 구원하는 진리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라 말한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자각하는 일은 실로 혁명적'이라고 그는 평한다. '선불교는 그러한 경험을 돈오'라고 한 것이다(790). 그는 지눌이 '선 수행의 정도(正道)로, 보편적인 길로 제시한 '돈오점수'가 '모든 사람에 타당한 길'이라고 본다(791). 지눌이 '선(禪)의 출발'로 삼았다는 '돈오'(頓悟)는 윤희식(2016a)이, '자명한 이해'라는 '증오'(證悟)의 '돈오'와 대비하여, '체험적 이해'라고 하는 '해오'(解悟)의 '돈오'이다. '몰입'[선정]을 통한 '참나접속'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인문선(禪)은, '돈오'나 '정혜쌍수'(定慧雙修)에 마음쓰기보다, 오로지 깨어서, 즉 '참나와 접속'하여 <선정과 지혜>가 중심인 6바라밀선(禪)의 일상적 실천을 부단히 지향한다.

길희성(2023)은 '이성과 영성은 결코 대립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완성해준다'고 말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서구 사상사는 영성이 그리스도교의 성서적 신앙과 교리적 도그마에 매어 있다 보니 이성과 신앙이 대립하는 역사를 연출해 왔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대립의 역사는 이성의 완승으로 끝난 셈이고, 그 결과 서구 지성사에서는 이성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관장에서 해방되어 철저한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었고, 반그리스도교적이고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지성을 낳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596). 그는 인간의 '영적 본성이 곧 인간을 종교적 존재로, 영적 존재로 만들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견해를 표명한다. 그에게 '영적 본성의 온전한 실현이야말로 종교의 근본 목적이고 세계와 인생의 궁극적 의미'이다. 그는 '참다운 인간과 참다운 신은 하나'라면서,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경지이고 인간성의 완성이라고 본다'고 진술한다(595). 길희성(2015)에 의하면, '일원론적 형이상학'은 '잡다한 현상세계의 배후에 있는 하나의 궁극적이고 통일적인 존재의 근원·토대를 추구하는 존재론적 신관'으로서, '주로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같은 아시아 종교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종교들은 '공통적으로 신인합일(神人合一) 내지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를 인간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 경지로 간주한다'. 원효의 '귀일심원'(歸一心源)도 기본적으로 이 '궁극적 경지' 추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오강남(2017)은 '여러 종교 전통 중 서로 통하는 요소를 총체적으로 <심층 종교>'라 부른다(12). 그는 '불교·신유학·동학·수피·노장 등 모두가 <하나>를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힌다(10). '참나·불성·일심·신성·성령·공적영지(空寂靈知)·허령지각(虛靈知覺)' 등은 모두 이 '하나'의 다른 이름들이다. 즉 모두 '영성'을 가리키는 말들이다. 한자경(2010)도 '불교든 유교든 동양철학의 핵심은 인간 심층의 절대적 하나를 드러내는 데에 있'다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인간 안의 신성이고 영성이며 부처와 성인의 성품'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 '인간 심층의 절대적 하나'를 드러내는 <영성 계발>이 '현자'(賢者)와 '성인'(聖人)이 되는 길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사선(禪)을 비롯한 인문선(禪)은 그러한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다. 길희성(2023)은 '현대 사상은 형이상학을 지식의 범주에서 추방해 버린 칸트와 현대 분석철학의 도그마에서 벗어나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동·서양의 일원론적인 형이상학의 전통이 지닌 가치를 재발견하고, 거기에 기초한 영적 휴머니즘과 영적 자연주의의 비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629). 그는 '현대 문명의 위기는 무엇보다도 이성이 그 본래적 토양인 종교적·영적·우주적 차원을 상실하고, 순전히 개인의 주체적 이성, 인간 중심주의적 이성, 도구적이고 기술적인 이성,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합리성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데 기인한다'고 판단한다. 그에게 '영성은 본래 신과 인간, 우주와 인간을 묶어주는 힘이다(630). 그런데 이것이 '근대적 이성'에서 이것이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영성의 넓고 넉넉한 뒷받침이 없는 이성은 편협해지기 쉽다'고 통찰한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분열적인, 그리

고 억압적이고 지배적이고 폐쇄적인 이성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631).

영성철학은 인간은 누구나 내면에 영성이, 신성이 있다고 가르쳐준다. 그러나 이를 단지 믿거나 아는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 영성이 천부적이어도 힘써 계발하지 않으면 내것이 되지 않는다. 윤흥식(2016b)이 ‘모든 종교에 보편적’이며 ‘공부의 자연스러운 발달단계’라는 ‘신해행증’(信解行證), 즉 ‘믿음·이해·다음·깨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예고의 ‘믿음’(信)이 ‘질적인 변화’인 ‘해오’(解悟)와 다음의 과정(行)을 거쳐 참나를 ‘증득’하는 ‘증오’(證悟)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양심철학은 ‘영적 성숙’의 단계로서, 불교의 ‘보살의 수행단계’라는 아주 복잡한 ‘52위’ 대신에, 『화엄경』 등 다수의 경전들에 근거하여, 간단명료한 <영성의 9급9단계>를 제시한다. 영성철학적으로 ‘획기적’이라 생각되는 이 제안에 따르면, 이 ‘9급9단계’에서 ‘해오’는 ‘8-7급’에, ‘증오’는 ‘1급’에 해당한다. 성인(聖人)은 7-8단[地]의 경지이다. 지눌의 『수심결』을 1주(住)되는 ‘교과서’로 여기는 양심철학은 『수심결』은 ‘승급체계’, 『화엄경』은 ‘승단계’를 잘 설명한 저술로 높이 평가한다. 윤흥식(2015)은 ‘매 순간 양심(참나)의 소리를 듣고 양심과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선(禪)이라고 말한다. 윤흥식(2012)은 내 안의 신성(神性)을 기반으로 하되, 참나와 예고의 두 세계를 ‘다 알고 사는 것’이 선(禪)이라고도 말한다. 이 ‘다 알고 사는 것’, 다시 말해, ‘참나 뜻대로 예고를 경영하며 사는 것’에는 영성 수준에 따른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선(禪)은 영적인 ‘직관적 앎’과 이성적·논리적 지식, 즉 무분별지와 분별지가 잘 어우러져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원효의 화쟁철학, 길희성의 영적 휴머니즘, 윤흥식의 양심철학이 모두 선(禪) 수행에 기반하여, 공통적으로 ‘성인(聖人)의 길’을 추구한다는 점은 크게 주목할 만하다.

4. 원효선에서 인문선, 수사선으로

메이에르(2004a)는 많은 이들에게 수사학은 시초부터 평판이 좋지 않았고,

여러 역사적인 이유들도 있지만, 플라톤의 비난이 수사학사에서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한다(3). 그는 ‘수사는 뗏을 놓을 수도 있으나, 코드해독과 탈신화화의 가능성도 제공한다’고 말한다. 그에게 ‘수사학의 최선의 해독제는 수사학 자체’이다(4). 그는 수사학이 적용되는 모든 영역들이 잡다하고 심지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은 오래된 확신성들과 가장 잘 확립된 답들의 붕괴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모든 것이 더 문제제기적으로, 더 논란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5). 메이에르(2012)는 묻는다: “의사들이 의술을 — 나치 수용소들에서 혹은 아르헨티나의 감옥들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 악을 저지르는 데에 사용했다고 해서 의술 자체를 규탄할 것인가?” 그럴 수 없듯이, ‘언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는 ‘언어가 진리의 도구이기는 하지만, 언어만으로 진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언어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유혹하고 설득할 수도 있고, 조작하고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가 유용한 것은 사람들이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비판 의식과 판단력을 행사하도록 이끌어주는 데 있다’고 말한다(52). 이러한 ‘수사적 이성’을 옹호하는 관점과 더불어, 아도(2017)가 자세히 기술해 보이는 서양 고대철학은 기존 수사학을 포괄하는 ‘영성적’ 수사선(禪)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원효선(禪)은, 명시적으로는 안 드러나도, ‘철학 담론’과 ‘삶의 양식’이 불가분한 서양 고대철학에서처럼, ‘선(禪) 담론’이며 ‘삶의 양식’이다. 원효의 학문·수행·삶을 이끌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그의 선(禪)을 이 시대에 되살리는 것은 중요한 인문학적 과제이다. 이제 선(禪)도 기본적으로 <영성의 탐구와 실천>으로 이해하며, 평생 ‘귀일심원 요익중생’의 삶을 추구하고 실천했던, 그리고 화쟁(和諍)을 통해 많은 학술적 업적을 남긴, 원효 같은 ‘영성의 대가’의 학문과 삶을 배우고 닮아야 한다. 박태원(2011:221-27)은 ‘화쟁 방법’들로 ‘① 인간의 진리탐구적 노력들을 긍정적으로 포섭하라, ② 각 주장들의 일리—理를 포착/변별하여 포섭하라, ③ 화쟁의 언어관을 수립하라, ④ 모든 쟁론적 인식 토대에서 해방되는 마음의 경지를 확보하라’를 제시한다. 이 ‘화쟁 논법’들은 이성적·논리적 접근만으로는 ‘효과적 실천’이 매우 어렵다. 고영섭(2012:49)은 원효의 ‘화쟁 회통의 논리’를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

게 함으로써[歸一心源] 중생들을 풍요롭고 이익되게 하는[饒益衆生] 논법'이라며, 논법(論法)에 주목하는데, 이 '논리'는, 원효의 탁월한 선구적 연구자 이기영(1991:427)이 '원효사상의 핵심은 『금강삼매경론』에 있'고, '禪을 통해서 <귀일심원 요익중생>하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이치와 방법을 각명히 전개시켜 간 것이 『금강삼매경론』'이라고 밝히듯이, 선법(禪法)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화쟁 연구들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한 이 선법은 고영섭(2000:355)의 '귀일심원 요익중생'에 대한, '안으로 부처가 되고 밖으로 보살이 된다'는 풀이에도 압축되어 있고, 이효걸(2002: 29)의 원효는 '<깨달음>과 <깨달음의 실천>에 따른 실천지침을 귀일심원과 요익중생이라고 하였다'는 언명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언명은 '귀일심원'이 '깨달음의 과정'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영근(2012:159)은 '철학적 자각을 통해 <깨달은 중생>으로 질적 전환을 하는 것이 바로 귀일심원이고, <깨달은 중생>으로서의 새로운 삶 즉 보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요익중생'이라는 해설을 통해 이 선법(禪法)을 아주 명료하게 드러낸다.

이기영(1988:145)은 원효가 '우리 모든 중생'이 '근본적으로 일심을 공통의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그 일심동체성을 알지 못하는 근본무명을 이어받고 태어남으로 해서 아집, 아만 등 잘못된 자아의식을 갖게 되고, 나아가 본래 동체인 다른 중생들과 사물들을 탐욕과 시기질투하는 마음으로 혹은 편협하게 애착하고 혹은 적대 증오하면서' '파란곡절을 일으키고 있'음을 통찰했기에, '그의 모든 저서에서 귀일심원하고 요익중생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야 한다고 강조'하게 된 것으로 파악한다. 이처럼 <일심>이 우리의 '공통의 바탕'이고 <귀일심원>이 '인간의 본래적 모습'이자 '인간이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원효철학이 <영성철학>이고, <귀일심원>은 우리의 <영성 회복>을 꾀하고 권하는 논법과 선법의 압축적 표현임을 뜻한다. 박태원의 원효선(禪)에 대한 여러 글들에서는, 그의 의도가 어떠한든, 원효의 화쟁을 <선(禪)으로서의 화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함을 보여주는 단서들을 적잖이 읽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글들에서 선(禪) 수행에 대한 구체적 정보들을 얻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다행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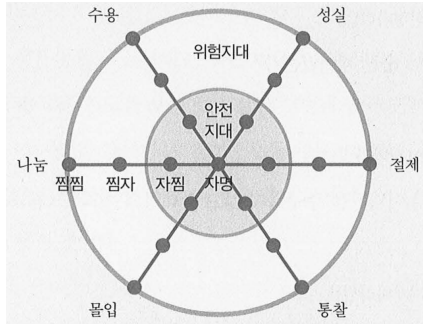
그러한 정보들을 윤희식의 양심철학에 대한 저서들, 특히 유튜브 자료들에서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선정과 지혜’ 즉 ‘몰입과 몰입사고’이다. 윤희식(2014)이 자세히 설명해 보이듯이, <몰입과 몰입사고>는 선(禪)의 핵심적 두 요소인 <선정과 지혜>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풀이해 제시한 것이다. 윤희식(2018a)은 ‘몰입’해서 사고해야 ‘몰입사고’이고 ‘참나상태에서 자명한 판단을 해야 지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예고가 참나를 만나면 영감의 형식으로 직관이 온다’고 알려준다. 그는 ‘집중을 해야 우리 안에서 직관력이 작동’해서 ‘바른 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게 되고, ‘그 바른 판단들을 모아갈 때 자명한 결론이 빨리 도출된다’며, ‘몰입사고’의 요점들을 짚어준다.

수사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들의 탐구는 ‘학문사변행’(學問思辨行)이라는 방법으로 포괄될 수 있다. 이 ‘학문사변행’은 『중용中庸』에 나오는 ‘박학·심문·신사·명변·독행’의 줄인 말로서, 윤희식(2014)에 의하면, ‘참다운 지혜를 얻은 사람인 성인(聖人)이 되는 비법으로 소개된 것’이다(282). 현대적 활용에서 ‘학문사변행’은 구체적인 온갖 학술적 탐구법들의 ‘포괄적 탐구법’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탐구법들과 ‘학문사변행’ 자체도 ‘학문사변행’적 분석 대상이 되기에 ‘메타적 탐구법’의 성격도 갖는다. 저자는 ‘① 널리 배우고(博學), ② 세밀하게 질문하며(審問), ③ 신중하게 생각하고(慎思), ④ 명확하게 분별하며(明辯), ⑤ 독실하게 행동하는 것(篤行)’이라 풀이되는 이 ‘학문사변행’을 <5단계 연구법>이라 부르며, 현대적으로 ‘① 정보의 수집, ② 정보의 정확성 검토, ③ 정보의 체계적 정리, ④ 결론의 도출, ⑤ 실천에 적용’의 과정이라 기술한다(283). 그는 이 연구법을 <몰입>하여 ‘체계적으로 전개’하면 <개념과 체험>이 결합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며(282), ‘학문사변행’의 ‘지혜개발법’의 성격도 보여준다. ‘몰입’해서, 즉 깨어서 하는 ‘학문사변행’은 학문적 역량을 키우는 ‘몰입사고법’인 동시에, 그 쓰임에 따라 ‘양심개발법’도 되고, 나아가 ‘성인되는 법’도 된다. ‘학문사변행’적 탐구와 메타인지적 6바라밀 분석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인문선(禪)에서, 이들을 필요한 만큼 반복하여 그 ‘자명성’을 키워가는 과정은 무분별지

와 분별지가 융합된 ‘지혜’를 구하는 과정이며, 참나와 예고, 영성과 이성·감성이 ‘협업’하는 과정이다. 인문선(禪) 실천에서는 ‘공부 따로, 수행 따로’가 아니라, ‘공부가 수행이고, 수행이 곧 공부’이다. 인문선(禪)에서는 ‘학문 사변행’도 그 자체가, ‘영혼인도술’ 측면이 중시되었던 서양 고대철학의 철학 담론에서처럼, 그러나 더 엄밀한 의미의 ‘영성수련’ 과정이다. ‘학문사변행’이 구체적인 수사학 탐구가 될 때는 학문선(禪) 특히 화쟁선(禪)을 적극 고려하여,¹⁰⁾ 원효의 화쟁이 모범적으로 보여주듯이, 그 탐구가 다른 탐구들과 화쟁적·회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문선(禪)들의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실천 목표는 예고와 참나의 ‘협업’을 통한 ‘지혜로움’의 구현이다.

윤홍식(2009)에 따르면, ‘나눔·절제·수용·성실·통찰·몰입’의 6바라밀 선(禪)은 다음과 같이 생각·말·행동을 점·점·분석하여 ‘양심경영’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 ①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가(선정바라밀), ②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도 배려하였는가(보시바라밀), ③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상대방에게 하지는 않았는가(지계바라밀), ④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수용했는가(인욕바라밀), ⑤ 양심의 인도를 따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가(정진바라밀), ⑥ 나의 선택과 판단은 꺾꺾함 없이 자명한가(반야바라밀)(373). 이중에서도 특히 ‘깨어서’ 하는 ‘자명한가’의 판단이 중요하다. 저자는 매사에서 ‘이 6가지 항목을 스스로에게 묻고 양심의 울림 그대로 답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해 ① 자명, ② 자짚(자명>짚짚), ③ 짚자(짚짚>자명), ④ 짚짚을 구분’해보라고 조언한다. ‘각각의 항목에서 느낀 자명함과 짚짚함의 정도를 4단계로 표시한 다음에 이를 종합하여 검토’해보라는 것이다. 저자의 요구는 특히 생각과 언행이 언제 어디서나, ①과 ②까지의 ‘안전지대’, 즉 ‘자짚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374). 이는 서양 고대철학에서 말하는 원초적 의미의 <영성수련>을 정교하게 다듬은, ‘선정과 지혜’가 중심인 선(禪) 실천이다. 아래 도식을 참고하라.

10) 전성기(2018a, 2018b)의 학문선(禪), 화쟁선(禪) 논의 참고.



이러한 6바라밀에 의거한 분석은 영성철학적으로는 ‘경인의예지신’(敬仁義禮智信)(몰입·사랑·정의·예절·지혜·성실)의 유교식 점검과 다르지 않다. 유의할 것은 참나의 속성인 이 6덕목을 현상계의 ‘도덕률’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참나 차원의 ‘인의예지’는 절대계의 것이고, 사회적 ‘인의예지’는 현상계의 것이다. 메타인지적 6바라밀 분석을 하는 것은, 요약해 말하면, 깨어서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하는 것이다. 인문선禪이 통으로 펼쳐지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으나, ‘선정과 지혜’에 기반하여 6바라밀로 예고를 지속적으로 잘 경영해나가면 된다고 양심철학은 적극 독려한다. 윤홍식(2016c)에 의하면, 이러한 삶은 ‘욕심을 양심껏 충족’시키는 삶이며, ‘매사에 양심이 51% 이상 주도권을 가지고 경영’하는 삶이다. 윤홍식(2018b)은 ‘그냥 대승경전들을 보면 6바라밀로 꿰어져 있지가 않다’고 알려준다. ‘군데군데 6바라밀이 나오는 것이지, 6바라밀로 일관지(一以貫之)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6바라밀이 선(禪) 수행 전체를 꿰뚫는 이치(理致)로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나 『금강삼매경론』에 대해서도 어긋나지 않는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달리, 양심철학은 기존의 모든 불교 전통들을, 각파의 자명한 부분은 취하면서 6바라밀선(禪)을 중심으로 하나로 회통시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러한 6바라밀선(禪) 실천의 핵심은 지혜의 탐구와 실천을 위해, ‘깨어서 정성껏 6바라밀을 행하는 것’이고, 이를 습관화·일상화하는 것이다.

수사선(禪)에서 이러한 직관적 ‘자명점검’ 점검·분석을 하는 것은 수사학

탐구와 수사적 실천에서 보다 더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을 하기 위해서이다. 일종의 ‘영적 체험’인 이 양심의 ‘자명찜찜’ 느낌은 역량껏 느낄 수밖에 없다. 부단한 메타인지적 분석 체험을 통해 ‘영적 역량’이 커지고 영성이 성숙 되면, ‘자명찜찜’의 직관적 느낌도 더 선명해질 것이다. 윤희식(2017)은 6바라밀선(禪) 실천의 실천팁으로 ‘6바라밀의 원’이 찌그러지지 않게 하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정의감만 충만해서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문제가 된다. <더자털찜>은 윤희식(2021a)이 권하는 ‘은근히 꾸준히 자명한 방향으로 몰아가라’라는 ‘양심적 선택 심법心法’의 압축적 표현이다. 그는 ‘보살도, 군자도, 사도도. 더 자명하고, 덜 찜찜한 것을 계속 찾아가는 사람이니, 명확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들은 ‘점점 더 자명한 답을 찾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는 어떤 경우에 어떠한 선택을 하든, 6바라밀 분석에서 6항목에 대한 어느 ‘답’도 적어도 ‘더 자명하고 덜 찜찜한’ 선택이 되도록 하라며, <은근히, 꾸준히, 몰아가기!>를 심법으로 제시한다. 윤희식(2021b)은 늘 깨어있지 않아도, 중요한 순간들만에라도 ‘모른다’ 하며 참나에 맡기고, 매사를 내뚫대로그 아니라 참나의 뜻대로 처리하려고 노력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며 ‘드린 공功에 비해 가성비가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알려준다. ‘최소비용에 최대효과’가 나는 자리가 있고, ‘그렇게 일할 때 제일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몰라’만 잘 해도 인생이 바뀐다고 그는 말한다. 참나에 기반한 그러한 ‘선(禪)적 일 처리’를 그는 <지혜로운 영성생활>이라 부른다.

윤희식(2020)은 참나에서 직관의 느낌으로 받는 것은 ‘압축과일로 받는 것’과 같아서, ‘열어볼 수 없으면 내것이 아니’라고 알려준다. ‘느낌으로 알아도, 분석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걸 푸는 작업은 언어로의 개념화’이다. ‘언어화를 하고 또 선정에 들어있으면 더 자명한 느낌’이 오고, ‘더 정확한 언어화를 하면 선정에서 더 선명한 신호가 온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지혜가 계발’되기에, ‘선정이 지혜를 낳고 지혜가 선정을 낳는 정혜쌍수’가 이루어진다. 이같은 메타인지적 6바라밀 분석과 ‘학문사변행’적 탐구가 부단히 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당면한 수사학이나 수사 문제들에 대한 더 지

혜로운 선택과 판단도 가능해질 것이다. 윤홍식(2019)에 의하면, ‘아공·법공·구공’은 ‘참나의 뜻’을 읽어내고 따르는 단계, 즉 참나와의 ‘협업’ 심화의 단계일 뿐이다. ‘모른다’와 ‘괜찮아’로 만족하면 참나가 또렷해진다. 그래서 ‘무상·고·무아’이며, ‘고정된 실체’가 없는 ‘에고의 실상’이 보이면 아공(我空)을 안 것이고, 참나는 ‘상락아정’(常樂我淨)하며 ‘에고를 포함하여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구나’를 체득하면 법공(法空)에 이른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자명한가’에 대해, 참나에서 오는 ‘자명찹찹’ 신호를 통해 6바라밀이 그 속성임을 정확히 알고 체득하면, 구공(具空)에 들어선 것이다. 인문선(禪) 공부에서, 불교식 공부가 공(空)을 강조해서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유교식 선(禪) 공부를 하기를 권한다. 유교식 선(禪) 공부의 핵심은 ‘경(敬)해서(꺼어서, 몰입해서) 부단히 인의예지 공부를 하는 것’이다. 경(敬)과 선정의 선(禪)적 기능은 다르지 않다. ‘아공·법공·구공’은 지혜의 세 단계이다. 이는 양심철학이 제시하는 공부와 견성의 길이며 영성계발의 단계들이다. 이 길을 가는 것은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군자·보살·사도의 길을 가는 것이다.

5. 결론

동양 고대철학에서의 이상(理想)이 성인(聖人)이듯이, 서양 고대철학에서도 달성해야 할 이상은 현자(賢者)이다. 아도(2017)에 의하면, ‘좋은 삶’을 추구했던 서양 고대철학은 철학 담론이기보다 ‘영성수련’이었고, ‘삶의 양식’이었다. 고대철학 학파들에서, 현자의 모습은 ‘철학자의 삶의 양식을 결정짓는 초월적 기준’이었고, ‘이 기준에 대한 묘사를 통해’, 서로 다른 학파들에서 ‘심오한 일치들, 공통적 경향들’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모든 학파는 ‘영성수련’을 통해 나름의 ‘지혜의 길’을 모색한 것이다. 이 ‘영성수련’은 오늘의 영성철학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영성철학에 기반한 수사선(禪)은 플라톤의 ‘통속적 수사학’과 ‘참된 수사학’의 대립에서 수사 대상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수사의 ‘영혼인도술’과의 관련 여부가 핵심인 것으

로 이해한다. 이상봉(2019:334)이 기술하듯이, 플라톤과 이소크라테스의 수사학적 관점 차이에서 대상의 ‘절대적인 진리’ 여부가 핵심적 기준이었다 하더라도,¹¹⁾ 어떤 것이 ‘절대적인 진리’인지가 대개 불확실하기도 하지만, 수사선(禪)에서는 그러한 수사 대상의 성격보다는 선(禪) 실천자의 영성 정도와 선(禪) 실천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 김현(2004)이 그려보이는 “레토리케를 넘어서는 수사학”에서, 플라톤의 ‘참된 수사학’과 수사선을 상당히 닮은, 수사학의 바람직한 한 모습을 조망해볼 수 있다는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오늘날 수사학에서도, 서양 고대철학에서처럼, ‘좋은 삶’이 근본적인 문제로 적극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사선(禪)은, 먼 목표이기도 하나, ‘영성의 달인’이라 할 수 있는 ‘성인(聖人)의 경지’를 지향한다.

메이에르(2005:25)에 의하면, 전통적인 ‘에토스·로고스·파토스’는 ‘거리교섭’이라는 ‘수사적 관계의 불가분한 세 요소’이다. 메이에르(2004:134)는 이들이 더불어 작용하지 않으면 수사도 없고 논증도 없는데, 너무 자주 이들 중 하나에 우선권이 주어져왔다면서, 이들에게 동등한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더해, 수사선(禪)은 수사학이, ‘에토스·로고스·파토스’뿐 아니라 이들과 일부(특히 에토스에서) 겹쳐 보이기도 하는, <영성>을 이성과 논리와 더불어 핵심적 기반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를 잘 구사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성적 동물’이기도 하지만 ‘영적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안다면, 어떤 것이 ‘좋은 삶인가’에 대한 생각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더구나 자신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신해행증’(信解行證)을 통해 참나 증득을 적극 지향한다면, 수사적 선택과 판단들에서 예전과는 사뭇 달라질 것이다. 각

11) 이상봉(2019:334): “이렇듯 여러 가지 면에서 이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일치하기도 하지만 서로 상이한 점도 있다. 이소크라테스는 절대적인 진리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 반해 플라톤은 엄중한 진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확연히 대비된다. 또한 이소크라테스가 설득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수사학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면 플라톤에 있어서는 변증법을 통해 얻은 지식이 수사학을 통해 얻은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변증법이 근본적인 것이라면 이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는 수사학이 보다 근본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은 구분된다.”

자의 개성이 다르니, 예고의 개성과 참나와의 ‘협업’의 결과들도 크게 다를 것이다. 그렇지만 깨어서 하는 ‘영성적 자리이타’ 과정은 다르지 않을 것이고, 영성이 성숙될수록 수사선(禪) 실천의 결과들도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영성적 자리이타’는 모두가 진정한 ‘인문작품’이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다. 동·서양 고대철학에서처럼, 수사선(禪)에서도 탐구와 실천의 중심 주제는 ‘지혜’이다. 우리 시대에도, 예전 못지않게, 다시금 ‘신수사학’이 절실히 요구된다. 수사선(禪)은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수사학에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 준비하는 수사학적 시도이다. 수사선(禪)의 탐구와 실천은 인문학에도 새로운 성찰의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길희성.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세창출판사, 2015.
- 길희성. 『영적 휴머니즘-종교적 인간에서 영적 인간으로』, 아카넷, 2021a.
- 길희성. 『종교10강-종교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들』, 동연, 2021b.
- 길희성. 『신앙과 이성의 새로운 화해』, 동연(2015 개정판), 2023.
- 김영균. “플라톤의 ‘파이드로스’ 편에서 자기 인식과 혼의 이쁨”, 『동서철학연구』, 102, 2021: 195-215.
- 김월희. “수사(修辭)’의 의미와 변천 양상-‘수사입기성(修辭立其誠)’을 중심으로”, 『수사학』, 44, 2022: 9-38.
- 김유석. 서평, 『고대철학이란 무엇인가』, 피에르 아도(2008, 이래), 『철학사상』, 41, 2011: 381-388.
- 김현. “Rhétorikê는 수사학(修辭學)인가?”, 『철학과 현실』, 61, 2004: 153-168.
- 로랑 페르노. “플라톤과 수사학”, 『서양고전학연구』, 27, 2007: 87-103.
- 메이에르, M. 지음, 전성기 옮김. 『수사 문제-언어·이성·유혹』, 고려대출판부(원본 1993), 2012.
- 박태원. 『원효사상연구』, 울산대 출판부, 2011.
- 송유래. “서양 고대에서 삶의 방식으로서의 철학”, 『동서양 문명과 과학적 사유』, 최화외, 문사철, 2015: 111-139.
- 윤홍식. 『한국 큰스님에게 배우는 禪의 지혜』, 봉황동래, 2009.
- 윤홍식. “도마복음과 禪”, https://www.youtube.com/watch?v=OnytOMAV_IM, 2012.
- 윤홍식. 『내 안의 창조성을 깨우는 몰입』, 봉황동래, 2014.
- 윤홍식. “6바라밀선(禪) -매 순간 양심 안에서 거닐 수 있기를”, <https://www.youtube.com/watch?v=9KR-g3YuW4w>, 2015.
- 윤홍식. “대승보살의 길을 밝히다 1강”, <https://www.youtube.com/watch?v=INHBGJ5eiB0>, 2016a.
- 윤홍식. “보조 지눌의 원돈성불론 강의”, <https://www.youtube.com/watch?v=I5S7WTFvIn8>, 2016b.
- 윤홍식. “욕심을 양심껏 충족하기, 로마서, 설법방식”, <https://www.youtube.com/watch?v=ntFurTQ5UIA>, 2016c.

- 윤홍식. “마음의 초점을 잡고 한마음을 드러내라!”, https://www.youtube.com/watch?v=BA_TKshlcd4, 2017.
- 윤홍식. “철학입문, 선정과 지혜를 얻으라!”, <https://www.youtube.com/watch?v=jxedYUfOh yQ>, 2018a.
- 윤홍식.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로 철학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LucxYTr oyAE>, 2018b.
- 윤홍식. “구공, 참나의 자명·찡찡 신호의 실체를 파악하라!”, <https://www.youtube.com/watch?v=tz74GBjF2AE>, 2019.
- 윤홍식. “화엄경 초발심공덕품 강의 30강”, <https://www.youtube.com/watch?v=E6c hgvMCBgw>, 2020.
- 윤홍식. “은근히 꾸준히 자명한 방향으로 몰아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Msj oYfXoCuI>, 2021a.
- 윤홍식. “홍익인간·경천애인, 영성공부의 본질”, https://www.youtube.com/watch?v=fcx_rPX7Skc, 2021b.
- 이기영. “세계의 문화적 현실과 한국불교의 이상 -원효사상은 21세기 세계를 향해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불교연구』, 4·5, 1988: 133-158.
- 이기영. “원효사상의 독창적 특성 -금강삼매경론의 철학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대계』, 2, 1991: 425-471.
- 이상봉. “이소크라테스의 수사철학”, 『철학논총』, 96, 2019: 315-337.
- 이효걸. “元曉의 和諍思想에 대한 재검토”, 『불교학연구』, 4, 2002: 5-34.
- 전성기. “학문선(禪) 혹은 선(禪)으로서의 학문”, 『수사학』, 31, 2018a: 5-47.
- 전성기. “화쟁선(禪) 혹은 선(禪)으로서의 화쟁”, 『수사학』, 33, 2018b: 31-71.
- 전성기. “수사선(禪)으로의 초대”, 『수사학』, 36, 2019: 199-237.
- 전성기. 『선禪, 지혜의 탐구와 실천』(미간).
- 장영란. “스토아학파의 영혼의 윤리적 훈련과 치유”, 『해석학연구』, 36, 2015: 185-214.
- 정영근. “불연 이기영의 한국불교연구 -그 특징과 의의”, 『불교연구』, 36, 2012: 135-170.
- 정혜진. “플라톤의 『파이드로스』 -참된 수사학과 심성함양”, 『도덕교육연구』, 2012: 24-3, 113-132.
- 피에르 아도 지음, 이세진 옮김. 『고대 철학이란 무엇인가』, 열린책들(舊譯 2008, 원

- 전 1995), 2017.
- 한석환. “플라톤과 수사학”, 『哲學』, 75, 2003: 81-101.
- 한자경. “마음의 존재와 그 자각-동서철학 비교의 지평에서 ‘전체로서의 마음’을 생각하기”, 『哲學』, 103, 2010: 25-55.
- Barthes, R.. “L'ancienne rhétorique,” *Communications*. 16, 1970: 172-223.
- Brown, S.C. “Introduction”, in “Value in the New Rhetoric: I. A. Richards and the Necessity of *Ethos*”, *Rhetoric Review*, 9-1, 1990:6.
- Davison, A.I. “Préface”, *Exercices spirituels et philosophie antique*, Hadot, P., Albin Michel, 2002: 7-14.
- Foss, S.K., Foss, K.A. *Inviting Transformation: Presentational Speaking for a Changing World*, Second Edition, Waveland Press, Inc. 2003.
- Gordon, R. “Beyond the Failures of Western Communication Theory,” *Journal of Multicultural Discourses*, 2(2), 2007: 89-107.
- Hadot, P. *La citadelle intérieure; Introduction aux Pensées de Marc Aurèle*, Fayard, 2ème éd. 1997.
- Hadot, P. *Exercices spirituels et philosophie antique*, Albin Michel, 2002.
- Hadot, P. *La philosophie comme éducation des adultes: Textes, perspectives, entretiens*, Vrin, 2019.
- Meyer, M. *La rhétorique*, «Que sais-je?», n° 2133, PUF, 2004a.
- Meyer, M. “Argumentation, rhétorique et problématique”, *Perelman, le renouveau de la rhétorique*, PUF, 123-136, 2004b.
- Meyer, M. *Qu'est-ce que l'argumentation?* Vrin, 2005.
- Pavie, X. *La méditation philosophique: Une initiation aux exercices spirituels*, Eyrolles, 2010.
- Pavie, X. *Exercices spirituels: Leçons de la philosophie antique*, Les Belles Lettres, 2012.

Why Rhetoric-Seon?

JON Sung-Gi
(Korea University)

Pierre Hadot (2017) describes Western ancient philosophy as seeking the ‘path to wisdom’ by taking the Sage as its ideal and practicing a ‘mode of life’ called ‘spiritual exercises’ as a method of philosophy, which opens up the possibility of a Rhetoric-Seon that goes beyond existing rhetoric. Hadot said that for Western ancient people, philosophy, quite different from today’s general ‘philosophy’, consisted not in the establishment of theoretical discourse or argumentative system, but rather in reflection and choice on the way of life, and it was a ‘spiritual exercise’, which involved reflection and choice on the way of life and training toward the completion of the style of life one had chosen. This has great implications for Inmun-Seon and its main field, Rhetoric-Seon, which are trying to revive Wonhyo-Seon before the advent of Seon-Buddhism, thanks largely to the six paramitas-Seon of the philosophy of conscience. Today, when ‘undulatory rhetoric’ has been suppressed to the extent that ‘particulate rhetoric’ has become the ‘default mode’ of communication, new rhetorical thinking and practice are desperately needed. The Rhetoric-Seon is a rhetorical attempt to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and hopes for a ‘paradigm shift’ in rhetoric. The Rhetoric-Seon, which has ‘spirituality’ as its core foundation, constantly practices convergence of ‘Hak-mun-sa-byeon-haeng’ exploration of rhetoric and metacognitive analysis of the six paramitas. As in Eastern and Western ancient philosophy,

the central theme of exploration and practice in Rhetoric-Seon will be ‘wisdom’. It is expected that the exploration and practice of Rhetoric-Seon will open a new way in rhetoric and even the humanities.

Keyword ● Rhetoric, Rhetoric-Seon, Spiritual Exercises, Spirituality, True-Self, Wisdom, Immersive Thinking, Hak-mun-sa-byeon-haeng

▮ 논문투고일 : 2023. 11. 21. ▮ 심사완료일 : 2023. 12. 10. ▮ 게재확정일 : 2023. 12. 11.